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이 조조되어야 하고 또 발전되어야 한다



김남용
본회 회장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은 존속되어야 하고 또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면 낙농육우농가는 물론 낙농육우 관련인사들도 존속도 어려운 마당에 발전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이다. 그러나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그리고 쇠고기의 수요가 있고 또 증가하는 한 낙농육우산업은 존속되어야 하고 또 발전하여야 한다.

우리 「월간 낙농육우」가 창간 16돐을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에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현재는 월 발행부수가 2만부지만 최고로 발행하였을 시는 2만6천여부를 발행한 때도 있었다. 전국의 낙농육우농가에 배부되고 있어 농가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낙농육우지를 접할 수 있으며 낙농육우농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주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구상을 설계할 수도 있었으며 때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 우리 낙농육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낙농육우산업이 존속하는 한 「월간 낙농육우」도 계속 발간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 해가 바뀌면 어딘가에 빛이 보이리라는 기대로 새해를 맞으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움이 눈 앞에 다가서 낙농육우인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금년도 이미 반이 흘렀다. 경기침체로 쇠고기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소 두수가 증가하였으며 쇠고기 수입 쿼터량도 지난 해보다 2만톤이 증가하였다. 소비둔화로 소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젖소수수 수매, 그리고 육우전문매장의 설치로 육우경락가격은 약간 회복되었으나 송이지값은 인상되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며 한우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우수매로 한우값은 수매하는 값이 바로 시중가격화가 되어 있으나 암소값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한우경산우의 수매를 건의하고 있다. 한우 수매육이 10~20% 싸게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우경산우의 매매가 멈췄다고 한다. 한우 경산우를 정육업자들이 사서 도살을 하지않고 있다. 한우 경산우 중 노산우를 도축하여 시판할때 질이 좋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싸게 팔아야 하는데 수매육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우 경산우는 처지게 되고 따라서 값이 폭락을 계속하고 있다.

소 대책은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한우종합대책을 새로 손질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정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우만은 살려야 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단지 한우를 살리는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유제품시장은 수입품의 시장화가 되었다. 분유의 시장은 모조분유에 완전히 잠식을 당하여 국내 분유가 팔리지를 않는다. 팔리고 있는 것은 정상가격이 아닌 반값 이하의 가격 즉 수입 모조분유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국내산 분유를 원료로하여 제조되던 유제품을 비롯한 식품원료는 모조분유로 대체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산 분유는 1만2천여톤이 창고에 쌓여 있다. 우유 성수기에도 분유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영세 낙농조합들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치즈,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도 수입품들이 판치고 있으며 가공우유, 발효우유도 우리나라 제품 같으나 원료는 조합계통 이외에는 대부분 모조분유를 원료로 하고 있어 국내 것인양 포장되어있지만 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시유만은”하고 시유시장은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으나 국내산 우유는 한방울도 들어있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국내 시유와 같다고 느끼도록 포장한 가공우유가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내산우유 100%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사먹고 있는데 실은 국내산우유가 한방울도 들어있지않은 가공우유다. 이 가공우유가 시장에 정착되면 가공우유를 유업체가 아닌 일반 식품회사에서도 제조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모조분유를 물에 타서 만드는 것이 가공우유이므로 유업체가 아닌 곳에서도 제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모든 공산품은 인상되고 있다. 그러나 소 값은 계속하락하고 있으며 우유는 값싼 외국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분유의 재고가 1만2천여톤이 쌓여 있으며 소진책이

「월간 낙농육우」는 전국의 낙농육우농가에 배부되고 있어 농가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으며 낙농육우농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주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구상을 설계할 수도 있었으며 때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 우리 낙농육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하였다.

없고 또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분유류가 정상가격의 반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7월이면 돼지고기, 닭고기가 완전개방되는 이외에 소의 꼬리, 족, 내장 등 부산물이 관세 19.4%로, 쇠고기 통조림이 관세 77.1%로 개방된다. 이미 소꼬리, 족은 수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잘못하다가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족발, 꼬리가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와 국내 소값을 현재보다 더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고 우려되고 있다.

낙농가들의 숙원과제인 낙농진흥법의 개정도 충남지역 집유조합의 반대로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그 시기를 이미 상실하여 그 효과는 반감하게 된다. 유제품의 국내시장은 이미 수입품이 잠식하였으며 시유시장까지 외국의 멸균우유들이 98년의 시유유통기한 자유화를 기하여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또 가공우유라고 하여 모조분유를 물에 타고 여러가지 성분을 첨가하여 기능성우유라고 서로 다투어 출시를 하여 시유만은 지킬 수 있으며 지키겠다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소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농촌에 소득원이 없다. 소산업이 농촌에서는 큰 소득원이다. 소산업이 농촌의 소득원으로 존속하는 한 우리나라의 쌀농사도 또 농촌도 지킬 수 있다. 소산업이 농촌에서 사라진다면 소산업만이 농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경종농업도 사라지고 또 농촌도 보존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식량속국이 되어 주권행사도 못하는 나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소산업을 지키는 것이 경종농업을 지키는 길이며 또 농촌을 지키고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소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소산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소산업에 어려움이 닥쳐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지로 이 어려움을 이겨서 우리 소산업도 지키고 경종농업도 지키며 우리 농촌도 지켜야 한다.㊦

소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소산업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소산업에 어려움이 닥쳐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지로 이 어려움을 이겨서 우리 소산업도 지키고 경종농업도 지키며 우리 농촌도 지켜야 한다.